

광주세계수영대회 관광객 맞이 준비 잔걸음

광주시 10개 협력여행사 선정
전국·광주권 투어상품 개발
투어버스·관광안내소 확대
100여명 관광서포터즈 운영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스포츠 행사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시가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25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200여개 나라에서 광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돼 다채로운 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할 협력여행사들을 지난 23일 공모심사 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주)모두투어, 남해관광, 할리데이플래너스 등 10개 광주시 협력여행사는 서울·광주·제주 등을 잇는 전국단위 여행

상품과 광주와 인근 전남·북을 연결하는 광역단위 여행상품, 광주도심과 무등산 등 광주시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광주권 여행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게 된다.

협력여행사들의 모든 상품에는 광주 내 관광지 두 곳 이상과 숙박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광주시와 광주관광협회는 합동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다섯 개의 매력적인 여행코스를 엮어 '남도 관광투어' 패키지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투어버스는 선수촌과 주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 역에서 출발하며 외국어가 가능한 가이드와 해설사가 상시 탑승한다.

광주시는 다양한 광주권 투어상품을 통해 광주와 담양, 나주, 목포, 여수, 순천, 보성, 전주의 핵심 관광지를 돌며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고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유여행객을 위한 관광정보도 제공된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기간에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유스퀘어광주고속버스터미널 등 현재 8개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이외에 수영대회 선수촌과 주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 주변에 특별관광안내소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관광안내소와 주요 관광지 및 전국 고속버스 휴게소에는 여행 홍보물 12만부를 비치하고 외국 여행객들을 위한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또한 3만부를 발행해 보급한다. 아울러 역동적인 광주관광홍보 동영상도 참가 선수단 및 운영진 수송버스에 탑재해 상연하는 등 관광수요 촉진 활동도 한다.

여행객들은 올해 3월부터수영대회 조직위 홈페이지에 신설된 관광전문배너인 '오매광주' (www.tour.gwangju.go.kr)를 클릭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사이트, 숙박, 관광명소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330' 콜센터 외국어 관광

안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외유학생 홍보단, 시민서포터즈 중 외국어 가능자, 5개 자치구, 한국관광공사, 광주관광컨벤션부, 광주관광협회, 숙박업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선발된 '관광서포터즈'도 수영대회 기간 운영된다.

지난 5일 100여명 규모로 모집한 관광서포터즈는 5월21일 시민의 날에 발대식을 갖고 수영대회 기간 중에 관광객들에게 관광 및 소품 안내를 제공한다. 또 주요 관광지에서 친절, 질서, 정결 활동과 캠페인을 한다.

광주시 박항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해외관광객들이 2만명 이상 광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회기간 중 아름다운 광주에서 남도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즐겨는 추억과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도록 관광객 맞이 준비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대구 EXCO에서 열고 있는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평화의 물결 속으로 '침병'

24일부터 3일간 대구서 열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참여
내외국인에 세계수영대회 홍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4일부터 3일간 대구 EXCO에서 열리는 제16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 활동을 벌인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전담반 6명을 구성해 ▲수영대회 홍보부스 설치 ▲홍

보영상물 상영 ▲입장권 구매방법, 경기장, 종목, 교통 안내 등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와 관심 유도를 위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우선 지난 24일에는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가 박람회장 각 부스와 행사장 안팎을 돌며 기념촬영 등 홍보활동으로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 전국에서 모인 의용소방대원들에게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하고 입장권 구매와 경기 관람을 요청하기도 했다.

황기석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올해 국내 유일의 국제대회로 성공 개최를 위해 각 사·도·시·군·구·자치단체와 광주·대구·달빛동맹 교류행사 시에도 수영대회 홍보와 경기관람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도 올해 약 250여개 업체 및 약 7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해 소방관련 제품 구매와 수출을 상담하고 각종 국제세미나와 소방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공직생활 30년 맞은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소통·지역발전·안전이 시정 핵심 키워드 도시철도 2호선·광주형일자리 해결 보람”

“시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공직생활 30년을 맞은 광주시 정중제(56·사진) 행정부시장은 시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소통'과 '지역발전' '안전'을 꼽았다. 정 부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등을 강화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보다 36% 감소해 광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정 부시장은 "민선 7기 목표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 그동안 고질적 현안으로 남아있던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다는데서 보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쟁은 '공론화'를 통해 중지를 찍었고, '광주형일자리'도 끝내 성사시키는 등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광주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완도 출신으로 광주인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정 부시장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광주로 온 이유에 대해 "수구초심"이란 고사처럼 '내가 자라온 곳을 성장시켜준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쌓아 온 중앙행정 노하우와 정부부처 네트워크를 활용해 광주의 현안을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정 부시장은 "광주인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정 부시장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광주로 온 이유에 대해 "수구초심"이란 고사처럼 '내가 자라온 곳을 성장시켜준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쌓아 온 중앙행정 노하우와 정부부처 네트워크를 활용해 광주의 현안을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정 부시장은 "광주인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정 부시장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광주로 온 이유에 대해 "수구초심"이란 고사처럼 '내가 자라온 곳을 성장시켜준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쌓아 온 중앙행정 노하우와 정부부처 네트워크를 활용해 광주의 현안을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이 시정과 만났다. 정 부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 방식으로 '소통'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정 실국장이 참여

하는 '협업조정회의'를 매주 주재하고 있다. 간부들이 담당업무를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로서, 지역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민생현안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점검하고 토론해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 부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행정에서는 협치가 중요하고, 그 출발점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때문이다. 시민과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정책 방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 부시장은 그 수단으로 '인문학'을 활용하고 있다. '재난안전과 인문학의 만남', '소셜 속 문화예술과 인권' 등의 주제로 강연을 하며 시민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정 부시장은 소설로 읽는 프랑스 예술기행 '파리에 서 온 이메일'을 최근 발간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9월 냈던 '세느 강에 띄운 e편지'의 개정판인데, 프랑스 파리 근무 당시의 경험을 살린 것이다. 그는 "현 단계에선 이용섭 시장을 잘 보좌하는 것이 시민의 뜻이며, 앞으로도 무엇이든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병내 남구청장 공약실천 평가 최우수 등급

광주 김병내(사진) 남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19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광주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장의 선거공약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실천 계



획서를 평가했다.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는 자치단체가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및 자료 요청에 따른 분석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회사 사정상 "급매" - 50%가격, 4월 30일까지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3000만원
- 급매 - 6500만원
- 문의. 010-6834-7400